

여성창업, 주부의 능력을 적극 발휘하자



이 상 현 의

창업 칼럼

한 남자의 여자,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며느리와 딸... 참으로 여러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현대의 주부들은 이 시대의 원더우먼이 되기를 요구 받는다. 고학력과 경험으로 무장한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도 결혼 후에는 주부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묻혀지고 무시당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개혁할 사람은 역시 주부다.

창업 시장에서는 가장 실패확률이 높은 집단을 주부창업으로 꼽는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부창업시 최대의 적, 즉 '남편'이라고 불리는 집단 때문이다. 창업은 먼저 가정의 동의가 필수인 사업이다. 남편과 아이들의 협조와 관심, 그리고 협업이 없으면 도저히 주부창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남편이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창업 일선의 아내가 마치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환상의 소머즈나 원더우먼이 되길 바란다. 남편이 퇴근할 때 집에서 맞이해주고, 아이들 공부도 잘 보고 보살

피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지냈으면 하고, 가급적 아이들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으로만 창업을 했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왕 시작했으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게 대다수 남편들이 창업을 결심한 아내들에게 바라는 내용들이다.

이 세상의 남편들에게 외치고 싶다. "그럼 당신이 직장 패러치우고 창업해라!"

물론 최근에는 자발적인 퇴사를 감행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개척하는 남편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에 대한 보장은 밝지 않다. 창업은 세심하고 꼼꼼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의 영역이 창업이다.

창업은 고객관리로 승패를 결정한다. 고객 서비스는 친절함과 구매욕구 충족 그리고 성실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그러한 범위를 가장 성실하게 구현하는 사람이 주부일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을 원하는 주부들에게는 다음을 조언한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의 주 고객, 즉, 표적고객들이 누구 인지를 분석할 것. 결국 표적고객들의 구

매성향이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실패한 창업자들은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AVARICE(과욕), 둘째 INERTIA(타성), 셋째 DELUSION(착각), 넷째 SELF-ABSORPTION(자아도취)이다.

지나친 낙관과 의욕은 화를 부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의 가정생활이 자칫 타성에 젖어 쉽게 포기하거나 남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극소수의 창업에 성공한 사람을 보며 마치 나도 될 수 있다는 쉬운 착각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주부창업이 힘들다고 세인들은 말한다. 이러한 점만 잘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주부창업이 오히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주부는 위대하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유형의 창업자들보다 고객의 감동과 만족을 위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주부인 것이다. 진정 주부창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서울시의 '깜깜이' 시정



기 지 수 첩

김 현 정
(정책사회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감사원감사,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안전감사... 서울시는 감사지옥, 직원들은 골병든다' 지난 2021년 10월 국감 때 서울시장 1층 로비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시청 공무원들이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파켓을 들고 시위했다. 얼핏 보기에는 '감사 좀 줄여달라'고 투정부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반복되는 국감 업무 쓰나미에도 시청 공무원들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국정수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야 할 의

무가 있기에, 시청 가족들도 매년 국감 때마다 곤혹스러울 정도의 업무 강도를 견뎌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뭇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들고일어난 것일까. 자기들이 파탄 흘러 만든 자료가 시민들에게 가닿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낸 논평에서 "사실상 연중 내내 각종의 원들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느라 시달려온 공무원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국감다운 국감은 없었다"며 "질의시간 내내 특정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고성인 시도 때도 없이 오갔으며 민생을 살피는 정책 국감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한탄했다.

공무원들은 매년 1만 건의 자료요구 폭탄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자료 좀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에서 서울시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10일 이내에 요청한 자료를 내야 함에도 집행부에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위반해 늦게 내고 ▲시정질문시 10일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료를 내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생성한 자료가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깜깜이 시정'을 구현하고 있어서다. 16일 서울시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울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결재문서 실공개율(전부 공개건수/전체 건수*100)은 월평균 20.6%였으나 오세훈 시장이 집권한 2022년에는 7.5%로 13.1%p 폭락했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7일 (음 12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 48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60년생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72년생 깊은 밤이 지났으니 아침이 온다. 84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낭비.



37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 49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61년생 패망한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 73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팔듯하나 자중할 때. 85년생 시간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38년생 자식자랑에 입에 침이 마른다. 50년생 상대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착각. 62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74년생 물이 들어오니 힘껏 노를 저어라. 86년생 바람이 마음을 흔들여 대니 같을이다.



39년생 손풍에 뒤편바 거뿔이 순조로운 하루. 51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63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75년생 타이밍이 중요하니 결정이 필요. 87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40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52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을 지켜준다. 64년생 굶은 나무가 산소를 지킨다. 76년생 스스로를 응원하라. 88년생 다시 분투노력하면 어려움은 뛰어넘을 수 있다.



41년생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피는 이치. 53년생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 65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77년생 미흡하다고 느끼면 중지. 89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42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54년생 결과도 중요하나 과정을 무시하지 마라. 66년생 벌을 두려워하고서는 좋은 꼴을 얻을 수 없다. 78년생 망설이지 말고 도전. 90년생 우울증이 다시 재발되는 시기인 듯.



43년생 때로는 깔끔한 포기가 득이 된다. 55년생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67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79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된다. 91년생 누군가에게는 호운이 누군가에게는 과유불급이 되는데.



44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6년생 야캣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68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 80년생 자신의 인생이니 자신감으로. 92년생 전력이 동료에게 뒤질지라도 성실성으로 극복해나가야.



45년생 종사의 하락으로 맥 빠지는 날. 57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돌아 다녀본들. 69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명상으로 지혜를 모으도록. 81년생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93년생 웃이 날개라는 말이 있으니 웃자람에도 신경을.



46년생 사람 많은 곳은 주의. 58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지부지. 70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명만 있어도 성공한다. 82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하라. 94년생 반대의 속성이라도 다른 한쪽이 없으면 존재하기가 어렵다.



47년생 흠속에 감춰진 보물처럼 비상금이 있다. 59년생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71년생 지출보다 소득이 많이진다. 83년생 재물 운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95년생 부자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정해야만.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⑤



십간별十干別 다자간의 조합에서 볼 때 임갑병壬甲丙의 구조는 강휘상영부유영江輝相映浮柳影으로 혁신적으로 출세하는 구조이다. 임인년 임인월 임인일 임인시壬寅年 壬寅月 壬寅日 壬寅時 한눈에 봐도 거부의 팔자다. 상당한 재력가이나 가정사만은 편치를 알아 방법을 찾으려 왔다. 인寅속에 병화丙火가 있다. 지지 인寅은 삼합三合과 같은 강한 효력이다. 자녀들은 외국에 있고 집안일 보는 외부 식구들을 빼면 둘만 사는 입장이다. 임수壬水가 갑목甲木을 만나 무게감이 있고 너무 먼 먼 미래까지를 바라보며 계획 하에 산다. 회사의 경영주라해도 30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니 미래의 일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통한다. 그러다보니 집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대화를 해봐야 통하지를 않는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되면 인사형寅巳刑이 되니 부인포함 사돈 측에서 제동을 걸 것이다. 형刑이 되니 자연적 이별보다는 떠들썩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작용이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다해도 사화巳火부인이 회사 나누고 나가겠다고 할 것이다. 골치 아프게 된다. 이때는 오후午火나 술戌을 개입시키면 된다. 지금부터 개를 키워라. 집안에서 말쑥을 키울 수가 없으니 부인이 개戌 종류를 선택을 해서 강아지를 키워라. 처음부터 큰개를 키우지 말고 아가 강아지 때부터 데려와 키워야한다. 갑목甲木으로 3마리 이상이다. 사주의 흐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위해서 흐름을 본다. 남녀가 결혼하면서 내 팔자가 오묘냥 될 줄 누가 알았겠냐. 할 수도 있듯이 시작은 어디이고 어떻게 살며 무엇으로 끝이 되는가를 알아내는 앞날의 추론이 가능하니 작은 행위로 큰 틀의 흐름을 길 선하게 바꾸어 갈수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2	6	7			8	
7	8						2	
			9					5
						8		2
5								3
9		8						
6					4			
	4						9	7
	3			2	9	6		

	2		5				6	
8		6	3					7
			9				8	
						4	1	5
3	1	5						
	5				6			
2					5	9		1
	3				8		5	

정답

7	9	6	2	1	4	8	5	3
4	6	8	9	9	8	1	7	2
8	1	2	7	8	4	9	6	9
1	9	9	4	7	8	2	6	
8	4	6	8	1	2	7	9	9
2	7	8	9	6	9	8	4	1
9	8	4	2	8	6	9	1	7
9	2	1	8	9	7	6	8	4
6	8	7	1	4	9	2	9	8

2	9	9	8	6	4	1	8	7
1	4	6	9	8	7	8	9	2
8	7	8	9	1	2	4	9	6
9	6	2	7	4	8	9	1	8
8	8	4	6	9	1	2	7	9
9	1	7	8	2	9	6	8	4
7	8	1	2	9	6	8	4	9
4	2	9	1	7	8	9	6	8
6	9	8	4	8	9	7	2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